

中, 전국 통관일체화 시스템 본격 시행

오윤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 중국팀 연구원(oyumoh@kiep.go.kr)

주요내용

- 중국 해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통관일체화 시스템의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함.
- 통관일체화 시스템의 구축 배경은 △해관별 상이한 절차 및 규정 △복잡한 해관신고 및 납세 절차 △비효율적 통관방식 개선 필요성 등임.
- 통관일체화의 전국적 시행에 따라 통관의 지역 제한 해소, 효율 제고, 절차 및 제도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.

1. 이슈 현황

■ 중국 해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통관일체화 시스템의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함.

- 통관일체화 제도가 전국적으로 정식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임의의 해관 한 곳을 선택하여 통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게 됨.
 - 통관일체화는 기업의 등록지 이외 다른 지역해관을 통해 통관 진행이 가능한 통관관리체계로서 이를 통해 기업은 등록지 해관, 화물수출입지 해관 혹은 직속해관 중 집중통관신고지를 선택해 세관신고, 세금 납부 등을 할 수 있음.
 - 해관총서(海關總署)¹⁾는 리스크 예방관리센터와 세금 징수관리센터를 통해 통관 리스크 및 세수 관련 주요업무를 집중 처리함으로써 기존 각 지역 해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오던 통관 및 세금 관리감독 체계를 해관총서 총괄 체계로 전환

- 전국 항구(口岸)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'한 번 신고, 단계별 처리(一次申報,分步處置)'의

1) 해관총서(海關總署)는 중국의 통관 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 기관임. 중국의 통관행정조직은 해관총서와 47개 직속 해관(광둥분서, 텐진·상하이 파견사무소, 42개 직속해관, 2개 해관대학), 742개 예측해관 및 사무소(현장 업무처 포함)로 구성됨(자료: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, <http://www.customs.gov.cn/publish/portal0/tab49567/>).

통관관리방식과 기업의 자진 신고 및 납세, 해관의 세수징수관리 후속심사 등 세수관리방식의 개혁조치를 본격 실시하기로 함.

- 기업이 세관신고를 하면(一次申报) 항만 해관과 관할지 해관은 통관 전후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처리(分步处置)하는 통관관리방식으로 항만 해관이 현장에서 화물의 안전진입(安全准入), 합법적 수출입 등에 대한 기본적 위험관리 평가 후 우선 통관 허가를 내어주면 관할지 해관이 사후 대량심사를 후속으로 진행
- 과거 해관의 관세 결정이후 기업의 세금납부가 이루어지고 화물통관이 진행되었던 세수징수관리방식이 이제는 기업의 자진 신고 및 세액 산출, 자진 납부 후 해관의 통관 진행, 사후심사 및 추징 방식으로 변화

□ 중국 해관은 통관일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통관일체화 추진, 시범지역 선정 등 점진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.

- 2014년 징진지, 창장경제벨트, 주장지역을 시작으로 2015년 동북지역,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의 통관 일체화를 추진하여 5대 지역 2)통관일체화 체계를 구축
- 전국적인 통관일체화 제도 시행에 앞서 2016년 6월 상하이 해관 선정하여 两中心(2개 센터) 건설과 三制度(3가지 제도)3)의 개혁·실시 내용을 핵심으로 통관시스템 개혁을 시범 추진함.

2. 원인과 분석

■ 통관일체화 시스템의 구축 배경은 △해관별 상이한 절차 및 규정 △복잡한 해관신고 및 납세 절차 △비효율적 통관방식 개선 필요성 등임.

□ 기존 통관체계에서는 전국 해관이 각각 상이한 기준과 절차, 규정에 따라 통관 업무를 처리하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음.

□ 과거 기업들은 화물 수입지 해관에 세관신고를 하고 기업의 등록지 해관에 관세를 납부한 후 다시 수입지 해관에 납세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통관 처리에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음.

- 혹은 이전통관(수출입화물을 중국내 다른 해관으로 운송하여 통관수속 진행)을 이용하는 기업도 있으나

2) ① 징진지지역- 베이징, 톈진 등 수도권 지역 포함. ② 창장경제벨트- 상하이, 난징, 항저우, Ningbo, 허페이, 난창, 우한, 창사, 청두, 충칭, 구이양, 쿤밍 등 창장 연안지역 포함. ③ 주장지역-광둥, 푸젠, 광시, 하이난 등 포함. ④ 동북지역- 헤이룽장, 지린, 랴오닝, 네이멍구 등 포함. ⑤ 실크로드 경제벨트- 산둥, 허난, 산시(陝西), 산시, 간쑤, 닝샤, 칭하이, 신장 등 포함.

3) 两中心(2개 센터)는 리스크 예방관리센터와 세금 징수관리센터를 의미하며, 三制度(3가지 제도)는 '한 번 신고, 단계별 처리(一次申报, 分步处置)' 통관관리모델, 세금징수관리방식, 합동관리감독체계 개혁 및 실시를 의미함(자료: <http://www.customs.gov.cn/publish/portal0/tab49564/info801586.htm>).

이 경우 추가 소요시간과 운송비용 발생 문제 존재

- 화물 수입시 세관통과 시간은 한국 6시간, 일본 40시간, 싱가포르 35시간인 반면, 중국은 92시간으로 2.3~15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

□ 특히, 수출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통관방식의 정비가 필요하게 됨.

-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있어 일대일로 연선국가(沿线国家)들과의 원활한 무역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통관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임.

표 1. 아시아 주요국의 수출입 소요 시간 및 비용 비교

(단위: 시간, USD/컨테이너)

구분			중국	베이징	상하이	한국	일본	싱가포르	East Asia & Pacific
수출	세관통관	소요시간	26	29	23	13	23	12	57
		소요비용	522	425	602	185	265	335	402
	서류검토	소요시간	21	30	14	1	2	2	73
		소요비용	85	78	90	11	60	37	132
수입	세관통관	소요시간	92	117	72	6	40	35	71
		소요비용	777	760	790	315	299	220	436
	서류검토	소요시간	66	80	54	1	3	3	71
		소요비용	171	196	150	27	100	40	128
무역분야(Trading across borders) 순위			96(94)	-	-	32(32)	49(49)	41(41)	-

자료: WB(2017), Doing Business 2017.

3. 전망과 시사점


- **통관일체화의 전국적 시행에 따라 통관의 지역 제한 해소, 효율 제고, 절차 및 제도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.**

□ 어느 해관을 통해서라도 세관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통관의 지역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으며, 통관 소요시간 및 비용의 감소에 따라 효율이 제고되고 기업의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
- 특히, 해관별로 상이한 규정과 절차, 비용 등으로 인해 발생됐던 문제가 통일된 규정과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산정되어 통관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임.

□ 이번 조치의 시행은 중국의 지역·항구별 상이한 통관절차로 인한 한국기업의 대중국 교역 애로사항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.

□ 다만, 중국해관의 품목분류, 신고가격, 원산지 등에 대한 사후심사와 기업 신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

상되는바 이에 대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 

참고문헌

- 海关总署. 贸易新闻. 新华网, 政府网, 人民网,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등

알립니다

-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